



전주매일



이원택 도지사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듣겠다”

민선9기 도민주권 도정 힘차게 출발

제37대 전북자치도지사 취임식

도정 권한의 주인은 도민
지방자치의 의미 담아내
“도민 복리 증진 등 위해
맡은 책임 성실히 수행”
도민과의 약속 앞세운
새로운 도정 시작 알리

제37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민선 9기 도민주권 도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관련기사 2면·3면)

이날 취임식장인 전북도청 3층 대공연장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취임을 축하하는 도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 3층 공연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4층과 1층 로비에서까지 취임식을 중계하는 TV를 통해 지켜보는 도민들로 넘쳐났다.

이날 취임식은 기존의 형식을 벗어나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민주권 시대’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취임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인 정청래 국회의원, 최민희, 임오경, 김영환 국회의원과 도내 각 기관 단체장 도민 등 각계각층이 참석해 이원택 ‘도민주권 도정’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전북이 더 이상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정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도지사의 취임에 맞춰 축하 메시지를 보내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대독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이끄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도민 임명장 수여사이었다. 전북 14개 시·군을 돌며 도민들이 이원택을 도지사 임명했다는 응원을 담은



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도민주권정부, 이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37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취임식에서 도민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은 이원택 도지사(사진 가운데)가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영상을 취임식장에서 보여주었다.

또한, 4명의 전북 도민이 나와 도민 임명장을 직접 이원택 도지사에게 수여하며 새로운 ‘도민주권 도정’의 출발을 함께 선언했다.

도정 권한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담아낸 상징적인 행사였다.

이어 이원택 도지사는 취임 선서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취임식은 긴 취임사를 대신해 “들겠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네 가지 약속으로 채워집니다.”

도정 약속을 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주었다. 영상에 등장한 소상공인과 청년, 기업인은 경기 침체와 청년 유출,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전북 상품을 전국과 세계

시장에 연결하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더 이상 청년이 전북을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망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판로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전북 발전의 핵심은 지역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업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발전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도민주권 정부 실천 선언’에서는 “도민의 목소리에서 길을 찾고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며 “청렴과 헌신을 바탕으로 낮은 자세에서 도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도민 대표들이 “작

은 목소리도 끝까지 들어 달라”, “말이 아닌 변화로 보여 달라”, “도민과 함께 결정을 달라”고 당부했고, 이원택 도지사는 “도민과의 네 가지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도정을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당정청이 원 팀으로 하나되어 대한민국과 전북의 대도약을 함께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취임식을 마무리한 이원택 도지사는 화려한 구호보다 도민과의 약속을 앞세운 새로운 도정의 시작을 알렸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약속한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어떤 성과로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갈지 도민들의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남원 광한루의 야경.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 광한루 ‘국보’ 지정

유명 판소리·소설 ‘춘향전’ 배경
400여년 역사·문화적 가치 인정받아

전북 남원시(시장 양중모) 천거 등에 소재한 남원 광한루가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됐다.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관영누각으로, ‘호남제일루’라 불린다. 조선 초기 명재상 황희가 남원에 유배되어 세운 광릉루가 기원으로, 이후 광릉루가 쇠락하자 1434년 남원부사 민공이 새로 누각을 짓고, 1444년에 정인지가 누각에 들려 달나라 궁전인 ‘광한청하부’에서 이름을 따 광한루로 개칭하였다.

관리들의 연회와 사회가 열리던 곳이었으며, 주변의 호수와 3개의 섬(봉래, 방장, 영주), 그리고 오작교는 전라도 관찰사 송강 정철과 남원부사 장의국이 축조했다.

이후 1597년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었다가 1628년에 남원부사 신감이 지금과 같은 규모로 중건했고,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상량문, 기문, 읍지 및 근현대 신문 기사 등에 관련 기록이 명확히 있고, 큰 변화 없이 약 400년의 역사를 유지해 왔으며,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이 축적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리와 선비들이 교류하며 시문을 창작하던 관영누각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이상세계를 현실속에 구현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공간이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 판소리와 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건축유산으로 문화사적인 가치 또한 탁월하다.

광한루는 본루와 익루(요선각), 월랑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팔작지붕 형태이며, 실내공간을 넓게 쓰기 위하여 3개의 보가 중첩돼 있다. 공포는 익공계이며 용과 거북이 등이 화려하게 조각돼 있다.

익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5량 팔작지붕으로 가운데에는 온돌방이 설치돼 있으며, 공포는 하나의 익공으로 구성된 초익공으로 인공이 청룡과 황룡을 새겨 넣었다.

월랑은 정면 1칸, 측면 3칸, 팔작지붕의 구성으로 본루가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879년에 건립됐으며, 본루에 오르는 계단 역할을 한다. 공포는 익익공으로 깃기둥 위쪽에는 화려하게 조각된 용머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남원 광한루는 조선 후기 목조건축의 특징인 화려한 장식과 함께 요선각의 온돌, 월랑의 지주적인 참여와 노력이 축적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관리와 선비들이 교류하며 시문을 창작하던 관영누각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이상세계를 현실속에 구현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과 더불어 많은 문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공간이자 우리나라

시는 남원 광한루가 국보 위상에 맞도록 국가유산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